

#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확대 설치

### 市 개발 교통사고 예방 모델 특별교부세 8억 등 70억 들여 2020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이 202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설치된다.  
광주시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아 올해 말까지 25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70

억원을 투자해 광주지역 모든 초등학교(156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광주시가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도입한 모델이다.  
표준모델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란색 신호등 ▲차량 감속 유도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미끄럼방지(갈라) 포장 및 노면 표시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발광형 표지판 및 보행자 울타리 등이 정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서구 풍암초교, 북구 효동초교 등 2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표준모델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추가로 6개 초교에 설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2018년도 상반기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고, 9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교통담당자 워크숍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표준모델이 확대되면 운전자의 시인성과 인지력이 높아지고,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운전 사례가 줄어들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 눈높이는 성인에 비해 낮고,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 교육청, 경찰청,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주정차 금지 등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연내 조직·설비 완료 국립야생동물질병본부 광주 광산구에 문 연다

인간에게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정부 조직(환경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가 조만간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 준공된다.  
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진단, 치료, 조사하는 국가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정부 등에 건의해왔다.

7일 시에 따르면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본부는 환경부에서 전역 국비(198억원)를 들여 3만7100㎡ 부지에 연면적 7600㎡ 규모로 2017년 6월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올 연말까지 조직과 내부 설비를 갖춘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바이러스가 변이돼 사람과 가축에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철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감시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주변 국가와 공동으로 감염 예방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람이 ‘질병관리본부’가, 가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지만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별도 조직 없이 관리체계 또한 갖지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본부가 들어서면 상사근무 인력이 150여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정부혁신 현장 토론회와 광주전남 6월 항쟁 출범식 참석차 지난 5일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맨 왼쪽) 행정안전부장관이 북상중인 태풍 콩레이에 대비해 광산구 황룡강변의 송정배수펌프장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시민 주도 광주 혁신정책 정부 혁신토론회서 ‘주목’

### 행안부장관 등 참석 DJ센터서 마을분쟁해결센터 등 호평 받아

광주시의 혁신정책들이 정부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다양한 사례로 발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정부혁신 현장 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광주시장,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가 경험한 정부혁신’이라는 주제의 생생토크와 광주·전남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마을분쟁해결센터 ▲어린이보호구역표준모델 ▲무장애 남구 We편한 세상 만들기 등 정부 혁신사업에 참여한 6명의 시민들이 정부혁신의 경험과 제언 등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개소한 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 법률단체들과 함께 주민간 생활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토록 조정해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광주남구의 12개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we편한 세상 만들기-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동약자 이동권 향상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발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운영을 통해 운전자 시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 대

한 안전을 확보하는 혁신 정책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 혁신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적자생존의 시대에서 혁신생존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 토론,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다”면서 “민선7기 시정목표인 혁신, 소통, 청렴에 시정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동안 혁신이 정부와 공무원만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서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전국을 돌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혁신 전도사인 이용선 시장의 말씀처럼 학습과 토론,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이를 잘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소소드림’ 첫 선

### 제16회 자활한마당 개최

광주시는 지난 5일 빛고을체육관에서 광주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자활한마당’을 개최했다.  
“꿈을 향한 희망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성공을 다짐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시 자활생산품 공동브랜드 선포식, 자활유공자 표창,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가 자활기금 1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자활생산품 공동브

랜드 ‘소소드림’ 선포식과 함께 제품으로 수제청, 건감귤, 수제비누, 우리밀 쿠키 등이 첫 선을 보여 향후 광주시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소소드림’은 ‘소비자에게 작은 웃음을 드리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활생산품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자활사업을 통해 생산하는 상품으로, 사회적 편견 및 공포 미확보 등으로 그동안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자활생산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남구 귀금속·정육점 등 계량기 정기검사

광주시 남구청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귀금속 판매업소와 대형 유통점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관내 16개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남구는 7일 “공정 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귀금속 판매업소와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지에서 계량기를 사용 중인 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을 비롯해 접시저울, 판지저울, 전기식 저

울 등이다.  
지난해 또는 올해에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되며,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와 2017년 또는 2018년에 교정을 받은 뒤 사용오차 이내인 계량기도 제외 대상이다.  
검사항목은 ▲사용오차 ▲구조불량 여부 등이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폐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정을 받은 뒤 합격해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유아와 부모 함께하는 스마트폰 과다의존 예방교육

광주시는 유아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다의존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1월 8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유아대상 뮤지컬인형극과 학부모 교육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는 참여형 공연(‘또리또리 또 내 친구를 돌려줘!’)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바

른 스마트폰 이용수칙 약속하기 등이다.  
참가 대상은 만3세~6세 자녀를 둔 200가족 400여 명이며,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또리또리 또도’를 검색해 ‘가까오 플러스친구’ 또는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는 22일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개별 통보한다.  
문의는 광주스마트쉼센터(613-5790~1)로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